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이 소 희

2012년 8월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호 심

이 소 회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이소회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2년 8월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Lee, So Hee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yo Sh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2012. 8.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저소득가정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7
2.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및 구성요인	9
3. 사회적 지지 개념 및 구성요인	13
4. 역량지각의 개념 및 구성요인	17
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20
III. 연구 방법	23
1. 연구 대상	23
2. 측정 도구	25
1) 사회적 지지 척도	25
2) 역량지각 척도	26
3) 심리적 안녕감 척도	27
3. 자료 분석방법	29

IV. 연구 결과	30
1. 저소득가정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30
2.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 분석.....	35
3.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37
V. 결론 및 제언	41
1. 결론	41
2. 제언	43
참고문헌	45
Abstract	50
부록 설문지	53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4
<표 III-2> 사회적 지지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및 신뢰도	26
<표 III-3> 역량지각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및 신뢰도	27
<표 III-4>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및 신뢰도	28
<표 IV-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30
<표 IV-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량지각의 차이	32
<표 IV-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34
<표 IV-4>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 역량지각,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분석	35
<표 IV-5>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37

【국문초록】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 소 회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김 효 심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년, 가족유형,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에 따라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 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 간에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22곳을 이용하고 있는 4학년 이상 초등학생 275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검정, 일원변량분석(ANOVA), Pearson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가정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학년, 가족유형,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본 결과,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중 지역아동센터 복지사로부터의 지지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역량지각 하위요인 중 학문적 역량, 운동적 역량, 신체적 역량, 전반적 역량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자아수용에 대하여만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학년일수록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중 가족과 교사에 대한 지지를 높게 지각하였으나, 가족유형과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저소득가정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적인 높은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지지는 하위요인 중 친구, 가족, 교사,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의 지지 순으로 역량지각 전체점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친구, 교사, 가족,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의 지지 순으로 심리적 안녕감 전체점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 역량지각,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대인관계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역량지각 하위요인과 심리적 안녕감 전체점수 간의 상관도 전반적 역량, 학문적 역량, 사회적 역량, 신체적 역량, 운동적 역량, 행동적 역량 순으로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자아수용에 대한 설명력은 전반적 역량, 친구지지, 가족지지, 학문적 역량,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 순이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사회적 역량, 전반적 역량, 친구지지,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 순이었으며,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자아수용에 대한 설명력은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 운동적 역량 순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환경지배력에 대한 설명력은 학문적 역량, 전반적 역량, 친구지지, 운동적 역량, 행동적 역량,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 순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삶의 목표에 대한 설명력은 학문적 역량, 행동적 역량, 운동적 역량 순이었으며,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개인적 성장에 대한 설명력은 학문적 역량, 신체적 역량, 운동적 역량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녕감 전체점수에 대한 설명력은 회귀분석 결과, 학문적 역량, 전반적 역량, 운동적 역량, 사회적 역량, 행동적 역량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장·발달하게 된다. 인간은 한순간도 자기 혼자만의 생활이 불가능하고 평생을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타인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아동의 생리적·정서적 성장 발달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 환경적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빈곤과 같은 취약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의 경우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단계에 관련된 문제, 정서적·행동적 문제 등 전반적인 발달상에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저소득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경제적 궁핍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문제,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 문제, 심리적 문제 등을 유발하고 이에서 비롯되는 여러 불만 요인으로 말미암아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역량획득에 역기능적 영향을 가져온다. 빈곤문제는 그 자체로 아동양육 환경상의 박탈이나 결함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아동의 신체발달, 인지발달을 저해하며 행동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부모세대의 빈곤이 만성화되어 자녀 세대로 대물림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조양래, 2009).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양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동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뛰어난 적응력을 갖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빈곤이 아동발달과 역량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호요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그렇지 않으며 사회적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오승환, 2000).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스트레스 사건과 관계없이 자존감, 긍정적 기분, 그리고 삶에 대한 호의적 관점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이 사회적 지지 체계나 자원들의 지지

를 지각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타인과 관계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심리적 안녕감을 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Cohen & Will, 1985). 또한 부모와 관계를 친밀히 유지하고 부모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주관적 안정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 관계망 크기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사회관계망보다 가족, 친구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윤혜정, 1993). 즉 아동이 자기 주변의 사회적 관계 대상들과 어떤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상호작용하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아동 중에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하는 아동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접한다. 아동이 약 8세경이 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아의 각 영역을 구분하여 지각하고, 아동의 자아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행동, 감정, 동기 및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현옥, 2010). 이는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의 양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자아에 대한 지각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자아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에서 자아개념, 자존감, 자아효율성, 역량지각 등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어져 오고 있으나 이들 개념 간의 차이는 불분명하여 자아평가적인 개념에 대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한중혜, 1996).

역량은 유기체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능력으로 다차원적인 특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또한 역량지각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신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즉,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정보가 자신의 가치와 경험을 통해 자기 능력의 자각에 영향을 주어,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적응 능력이 달라지게 할 수 있다(Hater, 1982).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적응력이 좋아져 문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며(김은경, 2000), 역량지각이 높은 집단의 우울수준이 낮게 나타나 낮은 역량지각이 우울 가능성을 높인다(정영심, 2000)는 연구도 있어 역량지각이 적응 능력과 우울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iener(1995)는 역량지각이 높은 사람이 행복하며, 불행한 기간에는 역량지각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역량지각과 행복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는 아동에게 중요한 환경이며, 아동이 자신의 역량을 획득하는데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수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적 지지를 통해 아동은 학문, 사회, 행동, 신체, 운동, 자아가치 등 다차원적인 역량을 획득하게 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건강한 성장을 하게 된다. 또한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심리적 안녕감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한중혜, 1996).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며, 가족, 친구, 교사 등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즉 주변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유지와 지지 지각은 개인발달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여준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면 지지를 받는 아동은 인정과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만족감이 커져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 되고, 심리적 안녕감을 갖게 된다. 이는 경쟁의 논리와 경쟁의 가치체계에 의해 성장하는 요즘,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예측력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저소득가정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제주시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년, 가족유형,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에 따라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 간에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저소득가정 아동

저소득층의 범위는 나라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가정이란 법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범위에 포함되는 한부모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 등을 법정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2).

저소득가정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라 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으로 한정하였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사랑이나 정보, 물질적 원조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해 줌으로써 인간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조양래, 2010).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을 친구, 가족, 교사 이외에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의 지지를 추가하였다.

3) 역량지각

역량은 유기체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능력으로 다차원적인 특성을 내포하며(White, 1959), 자존감, 자아개념의 보다 분화된 개념으로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인 인지 요소임을 시사해 주는 개념이다(한중혜, 1996). 역량지각(self-perceived competence)은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Harter, 1982).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역량, 사회적 역량, 운동적 역량, 신체적 역량, 행동적 역량, 전반적 역량 등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Harter, 1985; 김현옥, 2010 재인용).

4)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각 개인의 참된 잠재력이 최고치로 추구되기 위한 노력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된다(Ryff, 1995). 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긍정적 인지적-정서적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삶의 전반에 걸쳐 만족, 행복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즉,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인 측면의 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과 과거의 삶에 대한 수용을 의미하는 ‘자아수용’,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긍정적 대인관계’, 내면의 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자율성’, 주어진 환경을 선택하거나 창조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환경지배력’,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지향하고 계획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삶의 목표’, 자신의 이전 특성들로부터 더 많은 잠재력을 확보하여 개발하려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인적 성장’ 등 6가지를 하위요인으로 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저소득가정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저소득층의 범위는 나라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저소득층이란 일반적으로 생계곤란 계층을 포괄적으로 통칭하는 개념이며 공적인 빈곤기준에 의해 생활보호의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범위가 넓어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보육료지원에서조차 저소득층라는 용어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30% 이하이면서 한쪽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을 저소득가정으로 보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2).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저소득층 만 18세미만의 아동을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라 보았으며, 제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으로 한정하였다.

빈곤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그다지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실직 및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저소득가정 아동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 모두에 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나 특히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역은 경제적 궁핍, 생활환경 문제,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등이 있다. 경제적인 궁핍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한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아동의 인성구조의 중심을 이루게 되고, 이로 인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극적인 태도, 긴장,

불안감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백정재, 이재연, 1997). 아동의 반 사회적 행동 증가나 아동의 자존감 저하는 가족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적이고 지원적인 측면이 감소하고 체벌과 같은 강압적인 양육방식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옥선화, 성미애, 허정원, 2001).

저소득 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부모 또는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아동은 가족해체라는 정서적 불안과 경제적 빈곤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듯 저소득가정의 문제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도 고스란히 전이된다. 그것도 단순히 전이가 아니라 아동의 전 발달과정을 통해서 큰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빈곤이 아동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발육부진과 같은 신체발달의 문제에서부터 인지발달의 문제, 학교적응의 문제, 정서문제, 행동문제 등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998년 IMF 경제대란으로 인하여 빈곤층이 급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한 공부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설립에 관한 국가적 차원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이경립, 2006).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 11호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 명시되어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처음 제도화되던 2004년 전국적으로 895개소에 23,337명이 이용하기 시작하여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2011년 3,985개소에 104,982명이 이용하고 있어 거의 5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제주지역 2004년 4개소에서 시작하여 2011년 12월 기준으로 40개소로 10배 증가하였으며, 1,071명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다(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2).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 신체·인지·사회 심리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1차적인 사회적 지지체계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위한 지역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아동의 건전한 성격형성과 비행예방의 역할과 간식 및 식사 제공 등 건전한 성장을 돕는 시설로서 제 2의 보호자, 양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조양래,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요인인 역량지각이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및 구성요인

1)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그동안 정신건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 안녕(well-being)이 있다(Springer & Hauser, 2006). 안녕이라는 개념은 단지 질병의 부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의 개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또한 학자들마다 ‘안녕’, ‘안녕감’, ‘심리적 건강’, ‘행복’, ‘복지’, ‘복지감’ 등 여러 용어로 사용하여 왔다(김현옥, 2010).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삶이 전체적으로 즐겁고 기쁘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로 정의된다(Diener, 1984).

심리학에서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크게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로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실현되었을 때 삶 속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초래하는 ‘인간의 잠재력(human potential)을 의미한다고 보는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으로 나누어진다.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높은 삶의 만족도, 적은 부적 정서경험, 그리고 많은 정적 정서경험을 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현옥, 2010).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은 철학적으로 쾌락적 관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삶의 질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측정하려고 하며, 이러한 접근의 출발 자체가 심리학적 이론과 맞닿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을 정확하게 측정

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yff & keyers, 1995; 이유리, 2009 재인용).

안녕감에 대한 다른 입장인 심리적 안녕감은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쾌락적 행복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삶 또는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삶에서 얻어진다고 보았다. 즉, 심리적 안녕감은 사람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주관적 안녕감과 달리 이론적으로 개인의 삶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삶의 질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well functioning)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김명소, 임지영, 2003).

따라서 최근 쾌락적 관점에서 삶의 질을 단순하게 측정하기보다 가치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에 초점이 맞춰진 행복론적 관점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복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학자인 Ryff(1989)는 Maslow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Rogers의 완전히 기능하는 개인(fully functioning person), Jung의 개성화(individuation), Allport의 성숙(maturity), Erickson의 기본적 삶의 경향(basic life tendencies), 그리고 Neugarten의 성격 변화(personality changes) 등의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6개의 차원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Ryff(1989)는 이 척도로 측정된 삶의 질을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라 하였고,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지배력, 삶의 목표, 개인적 성장 등 6개 차원으로 구성된다(이유리, 2009).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을 말한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인지하고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내적 동기에 의해 조절하여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 자신을 평가하고,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인

한 개인이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있는 정도가 삶의 질을 대표한다는 주관적 안녕감의 기본 골격에 반기를 들어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단지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제안이 제기되었다(Ryff, 1989). 이는 인간의 행복은 덕 있는 삶을 통해 얻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적 관점에서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쾌락적 행복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 또는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삶에서 얻어진다는 입장이다.

여러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주관적 안녕감에 대비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심리적 안녕감을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지배력, 삶의 목표, 개인적 성장 등 6개 차원으로 측정하였다(Ryff, 1989; 채수옥, 2010 재인용).

첫째, 자아수용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점을 포함하는 자아의 다양한 면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과거의 삶을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자아수용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의 과업에 대해 실망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의 나가 다른 나가 되기를 원한다.

자아수용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나 생리적 현상 또는 자신의 느낌, 생각, 행동, 가치관, 성격 등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 자신을 수용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설기문, 2001).

둘째, 긍정적 대인관계는 타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럽고 신뢰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복지에 관심이 있으며, 높은 공감도와 호의성,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인간관계의 상호교류를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긍정적 대인관계가 부족한 사람은 타인과의 밀접하고 신뢰 있는 관계가 거의 없다. 또한 타인에 대해 온정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을 어려워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고립되고, 좌절되어 있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협하려 들지 않는다.

적절한 대인교류는 사회인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편안함과 애정을 주고받으며, 감정적 지지를 얻고, 문제에 대해 충고를 받거나 조언을 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자아상을

발전시킨다. 적절한 대인교류는 대처를 잘 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친밀한 대인교류를 갖고 있는 것은 수명과 신체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자율성은 자기 결정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을 말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고, 내적으로 행동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에 의해 자신을 평가한다. 자율성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민감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타인의 판단에 의지한다.

자율성이란 자율적, 자치적,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는 상태이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목적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심리적 준비를 말하는 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행동이나 심리적인 상태의 수준 또는 질로 표현된다. 능력감과 관계성과 더불어 자율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Deci & Ryan, 2001),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수록 인생의 만족을 보다 많이 설명하고 있다(양병한, 2003). 따라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수록 인생의 만족을 보다 많이 느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넷째, 환경지배력은 환경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감각이 있으며,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외적 행동 계획을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주위에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알며, 개인적 필요나 가치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지배력이 부족한 사람은 일상적인 일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주위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없다고 느끼며, 주위에 있는 기회를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외부세계에 의해 계속해서 떠밀려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

환경지배력을 평가하는데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능력, 복잡한 외적 활동 계획 조절 능력, 주위에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개인적 필요나 가치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변화시키는 능력을 구성요인으로 보았다(Ryff, 1989).

다섯째, 삶의 목표는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과거와 현재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며, 왜 사는지에 대한 자기 답을 가지고 있다. 삶의 목표가 부족한 사람은 삶의 방향 감각이 없고, 지나온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며, 앞으로 살아갈 삶의 의미를 부여할 신념이나 태도도 부족하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감정과 삶에 대한 의미, 목적이 주어져 있다고 믿는

다. 이러한 믿음은 삶의 목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지향하며, 의도적으로 삶을 영위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목적이나 의도, 또는 인생은 의미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강정갑, 2001).

여섯째, 개인적 성장은 사람들이 가진 특성들 뿐 아니라 잠재력을 계속 개발해야 하며 한 개인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리고 사람들의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한다. 개인의 모든 문제는 경험이나 고정된 어떤 틀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개발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 도전하여 삶의 고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강정갑, 2001).

개인적 성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되어 감을 느끼고,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이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과 자신의 행동이 향상되는 경험을 하고, 자기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간다. 하지만 개인적 성장이 부족한 사람은 개인적인 침체에 빠지기 쉽고, 시간에 따라 성장이나 발전을 경험하지 못한다. 또한 사람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끼며, 새로운 태도나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다.

3. 사회적 지지 개념 및 구성요인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중반 예방 심리학이 대두되면서 높아졌으며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의 긍정적 효과를 이해하는데 널리 이용되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끊임 없이 상호작용을 한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끊임없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 등을 포함한다(정성인, 1998). Maslow(1971)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열거하고, 욕구의 계층별 조직과 충족의 진행 순서를 설명하면서 욕구 계층의 셋째 단계에 관심, 사랑, 인정, 용납, 이해, 도움 등을 받고자 하는 사

회적 욕구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간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또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는다고 하였다(박유미, 2010).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Cobb(1976)에 이르러서 개념정의, 기능 및 효과가 보다 분명하게 규명되었는데, 자기 자신이 사랑과 돌봄을 받고, 존중되며, 가치 있다고 여겨지거나 의사소통 관계망이나 상호 의무의 일원이라고 믿어지도록 하는 정보의 구성요소라고 정의하였다. Cobb(1976) 이후 여러 학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정의하였다. Kaplan(1977)은 사회적 지지를 애정, 승인, 소속 및 안정에 대한 개인의 욕구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사람, 우리를 돌보아 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유용성이라 정의하였고, Pommeau(1986)는 사회적 지지를 내용에 따라 구체적지지, 평가적지지, 정서적지지로 구분하였다(추이현, 2002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만의 기능적 속성과 구조의 속성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은 지지 정도와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자존감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지지욕구의 충족정도를 반영해 주는 자신의 사회관계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지각정도로 정의하였다(박지원, 1985). 또한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유안진, 한미현, 1996).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이유선, 1996). 또한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에 따라 행동문제가 적게 나타나며(유안진, 한미현, 1996), 적응행동의 수준은 높아진다(정성인, 1998).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인 지지 자원이 있다는 것과 타인이 그 지지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지지 받는 한 개인이 지지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지로서 활용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에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추이현, 2002).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란 타인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인간의 발달과정과 적응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다. 아동의 경우, 초기에는 가족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다가, 그 후 스스로 관계를 맺는 친구와 교사 같은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로 부터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다. 특히, 저소득가정 아동의 경우 가정과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 외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지역아동센터 복지사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관계망인 친구, 가족, 교사 이외에 지역아동센터 복지사를 추가하여 사회적 지지 구성요소로 보았다.

(1) 친구지지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정을 떠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과의 관계보다 또래관계가 활발해지면서 친구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아동기에 있어 또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정을 발달시키는 것은 일생을 통해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친구지지는 또래나 친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친밀감,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발달 등 긍정적 자원을 포함한다. 유아기에 비교적 약하고 일시적이던 또래관계가 아동기에 들어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급증하고 긴밀해진다.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 적응능력 등을 배우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며 친구와의 사이에서 비슷한 문제와 감정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홍복희, 2001).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또래 지지의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의 여부가 미래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나 적응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또래 친구의 역할은 그 영향이 아동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 이후의 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친구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는 아동의 성격 형성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수진, 2008). 이처럼 친구관계는 부모나 형제 등에서 얻는 사회적 지지와는 달리 가정을 떠나 자발적인 상호의존관계라는 새로운 대인관계의 시초가 된다. 또한 친구는 가족원들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와는 다른 성질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

한 사회적 지지원이다.

(2)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관심, 인정 또는 도움 등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포함한다. 성장과정에서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그 중에서도 부모-자녀의 관계가 아동·청소년의 성격형성이나 지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여러 가족원과의 지지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 도움 등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게 되고,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지지는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지지관계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 지적발달, 만족스러운 또래 관계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Parke, 1981; 박유미, 2010 재인용). 또한 어머니와 긍정적인 지지 관계에서 높은 신뢰감을 형성한 아동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다(윤미경, 1998). 형제는 부모나 친구가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 제공원으로 아동은 형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인지적 기술을 습득하고(유안진, 한미현, 1996), 애정, 도움, 인정 등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다(Deroiser & Kupersmidt, 1991; 박유미, 2010 재인용).

따라서 부모, 형제로 구성된 가족과의 지지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사랑과 수용, 안전의 느낌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아존중감과 상황대처능력을 증가시켜 스트레스 유발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적응에 도움을 줄 것이다.

(3) 교사지지

학교는 제 2의 가정으로 아동에게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다. 교사는 아동에게 지적성숙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교사는 아동이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으로 아동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사회관 등을 형성하게 된다(홍복희, 2001). 교사는 학교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이며 또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교과학습은 물론 정의적인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최은주, 2001). 교사지지는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교사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 도움이나 관심, 인정 또는 자신감, 성취감 등을 자원으로 정의한다(이혜경, 2007).

교사지지는 자아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미쳐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또한 교사지지는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주어 교사지지를 많이 받은 아동은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또래 관계에서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즉, 교사지지는 교실에서 공동체의 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역할이 핵심이 되어 아동의 사회적 신뢰감과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아동이 친구를 쉽게 사귀고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적응력이 높으며 놀이에서도 주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인기 또한 높게 한다(정승민, 2005). 즉,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가정을 떠나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교사와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사지지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

최근 가정해체 및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동들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이 아닌 학교나 학원 등에서 보내게 된다. 학교 방과 후 아동 방치문제로 학교 내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방과 후 보육 등 아동이 학교 방과 후에 방치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비 부담과 야간근무로 늦게 귀가하는 부모들이 늘어가면서 방과 후 교육과 보호, 생활지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복지사는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육 역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보호, 안전, 생활지도, 정서적인 지지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사와는 다른 종류의 지지를 제공해 주며 더 강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어 아동들로 하여금 믿고 의지할 사람으로 인식되어 높은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할 수 있다(이혜경, 2007).

4. 역량지각의 개념 및 구성요인

1) 역량지각의 개념

역량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의 정도(신기철, 신용철, 1975)

라고 정의되며 '능력'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역량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White(1960)로 역량을 주위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개인과 환경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역량이 발달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역량의 발달은 언어와 사회적 기술(Social Skill), 호기심과 문제해결의 발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자마다 역량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며 과학적 의미보다는 일상적인 의미로 쓰이므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김현옥, 2010 재인용).

Inkeles(1968)은 역량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Conolly와 Bruner(1974)는 역량을 일련의 기능적이거나 수단적인 기술이라고 정의하였으며, Ogbi(1981)는 역량을 문화적으로 지정한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이경림, 2006 재인용).

역량지각은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과 유사한 의미로 때로는 별개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역량지각에 대한 연구도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장인희, 2004). 자아개념은 개인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시키고 개인의 경험을 해석하고 개인의 행동이나 과업 수행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 보았다(오지윤, 1999).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평가적 차원으로 보고, 아동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태도에서 표현되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하였다(Coopersmith, 1967). 자기효능감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았다(Bandura, 1977). 결국 자아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인지적인 면을 의미하며(Richard & Gwendolyn, 1981),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이 갖는 전반적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Rosenberg, 1979)를 의미한다(오지윤, 1999 재인용).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념들이 총체적이거나 애매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역량의 기원을 동기의 측면에서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White(1960)의 개념을 토대로 역량지각의 다차원성과 총체성을 강조하며 현대 역량이론을 제시하였다(Harter, 1982). 현대 역량이론은 자신의 역량은 사회화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에서 파악되며, 자아 가치에 대한 견해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역량에 대한 자가지각이 높은 아동들은 도전정신과 호기심이 많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했다. 또한 8세경이 되면 서로 다른 요인을 초월한 전반적인 자아 가치감을 가지며, 8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은 학업능력, 사회적 능력, 신체·외모, 운동능력 및 행동·품행의 다섯 요인에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자아 가치감을 지각한다고 밝혔다.

2) 역량지각의 구성요인

Harter(1985)는 역량의 기원을 동기의 측면에서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White의 개념을 토대로 역량지각의 다차원성과 위계성을 강조하면서 현대 역량이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한 역량을 발달적 입장에서 해석하여 인간은 성숙해가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특히 부모, 형제 및 또래집단 등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자신의 역량에 대해 지각하고 평가하게 됨을 강조하였다. 즉 청소년은 사회화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에 대한 판단을 하며, 자아가치에 대한 견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민자용, 2000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Harter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아동들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요인을 학문적 역량, 사회적 역량, 운동적 역량, 신체적 역량, 행동적 역량, 전반적 역량 등의 6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역량이다. 이는 학교생활이나 학업수행에 관하여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똑똑하며, 숙제에 관하여 어떻게 느끼는 지에 대해 측정하는 것으로 이 점수가 높으면 자신의 학문적 역량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역량이다. 이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원만한지, 인기가 많은지, 친구가 어느 정도 있으며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점수가 높으면 아동들은 자신의 사회적 역량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셋째, 운동적 역량이다. 이는 자신의 운동 능력에 대한 자기지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점수가 높으면 자신의 운동적 역량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넷째, 신체적 역량이다. 이는 자신의 키와 몸무게, 얼굴, 머리모양 등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 하는지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점수가 높으면 아동들은 자신의 신체적 역량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다섯째, 행동적 역량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는지와 실제 자신의 행동방식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점수가 높으면 자신의 행동적 역량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여섯째, 전반적 역량이다. 이는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좋아하는 정도, 자신이 생활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행복하게 느끼는지와 같은 전반적인 판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점수가 높으면 자신의 전반적 역량감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 지지를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이것은 인간이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Maslow의 이론에 따르면 관심, 사랑, 인정, 용납, 이해, 도움 등을 얻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들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된다(노혜숙, 2008).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친구, 가족원, 동료, 이웃과 더 넓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런 관계를 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스트레스 수준에서 비교했을 때, 심리적 고통감을 덜 느끼고 더 높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다(Cohen & Wills, 1985). 기능적 측면에서는 주관적인 지각을 중요하게 여기며,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의 자원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개인이 지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타인에게 지지를 제공받아도 그것을 지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에게 지지원으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Schaefer, Coyne & Lazarus, 1981).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이 사회적 지지 체계나 자원들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을 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 이를 지각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병리 문제를 경험한다(김중남,

2004).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인의 부정적 요소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박지원, 1985). 또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긍정적 정서, 자신감, 자기통제, 자기만족을 증가시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Thoits, 1986), 사회적 접촉에서 이탈하여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면, 건강이나 안녕상태가 약해진다고 보고하고 있어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혜경, 2007).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에서 부모와 교사, 친구의 지지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이 보고되었다(오가혜, 2001).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또는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교사 관계, 친구 관계, 학교 수업 면에서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관희, 이경희, 1997). 그 외 다수의 논문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감소 및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관계를 이룬다고 밝히고 있다(문은식, 2002; 김영아, 2001).

아동이 자아를 정의하고 자아가치를 발전시키는 데에 사회적 관계 대상은 확고한 역할을 하며, 타인으로부터의 사랑이나 거부의 경험, 승인이나 인정의 경험을 통해 아동은 자신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된다.

아동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 대상들의 말을 통해서 자신을 묘사하게 되고, 아동기에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수용이 아동의 역량지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Harter, 1982).

역량지각은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아가치감 등과 유사한 의미로 때로는 별개의 개념으로 정의되어져 왔다. 전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연구가 누적되면서 자아존중감은 다영역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Harter(1982)는 영역별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고 이를 역량지각이라 명명하였다(장인희, 2004).

역량지각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 판단’, 혹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존중 및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역량지각이란 한 개인으로서 그가 가지는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즉, 긍정적 자기-기술은 행복과 관계가 있으며 역량지각의 한 측면인 자기애도 심리적 안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0학년 학생 2,213명을 조사한 역량지각과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Rosenberg(1995)

의 연구와 역량지각과 행복과의 상관이 .50 혹은 그 이상임을 보고하는 Vennhoven(1994)의 연구, 역량지각과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82로 보고하고 있는 Grob(1994)의 연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사람이 심리적 안녕이 높고 행복이 역량지각과 강한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김현옥, 2010, 재인용).

또한 역량지각과 유사한 개념인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자신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에 반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며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여기므로 종종 불안을 느끼고 우울해하며 불행스럽게 느낀다(주경희, 2010).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한 개인의 정서적인 면과 행동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높은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은 안정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은 우울을 경험할 취약성이 가장 낮고, 이로 인한 문제행동의 발생소지가 낮으며 심리적 안녕감도 높다고 설명한다(하유진, 2006). 우울한 집단과 우울하지 않은 집단에 있어 역량지각의 차이를 연구한 이주은(1995)의 연구에서도 우울한 집단에서 낮은 역량지각 수준이 나타나 역량지각 수준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보호요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역량지각과 유사한 개념인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 유사한 개념인 행복 또는 인생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으나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지각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심층적 실증자료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들이 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제주시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22곳을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4, 5, 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Piaget의 인지발달단계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만 12세에 해당하는 연령이 되면 자기보고식 질문에 신뢰롭게 응답할 수 있으리라 추측되기 때문이다.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자가 스스로 설문지에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 방식으로,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방법이다.

설문조사는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1년 12월 27일까지 16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설문자료 수집은 사전 동의를 얻은 지역아동센터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한 후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뒤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22개 기관에 총 319부를 배부하여 299부를 회수하였고,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응답한 설문지 24부를 제외하고 275부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가족유형,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75)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자	104(37.8)
	여자	171(62.2)
학년	4학년	107(38.9)
	5학년	72(26.2)
	6학년	96(34.9)
가족유형	양부모가족	141(51.3)
	한부모가족(모)	55(20.0)
	한부모가족(부)	39(14.2)
	조손가족	40(14.5)
지역아동센터 이용 기간	1년미만	61(22.2)
	1년이상~2년미만	58(21.1)
	2년이상~3년미만	46(16.7)
	3년이상~4년미만	44(16.0)
	4년이상	66(24.0)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62.2%(171명)가 여자, 37.8%(104명)가 남자로 여자가 더 많았으며, 학년은 4학년 38.9%(107명), 5학년 26.2%(72명), 6학년 34.9%(96명)으로 4학년이 가장 많았다.

가족유형은 양부모가족 51.3%(141명), 모자가족 20.0%(55명), 부자가족 14.2%(39명), 조손가족 14.5%(40명)으로 양부모가족 비율이 우세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기간은 1년 미만 22.2%(61명), 1년 이상~2년 미만 21.1%(58명), 2년 이상~3년 미만 16.7%(46명), 3년 이상~4년 미만 16.0%(44명), 4년 이상 24%(66명)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자기보고식으로 사회적 지지 척도, 역량지각 척도, 심리적 안녕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미현(1996)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와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종합하여 개발한 것을 이해경(2007)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사회적 지지를 4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로 구분하였다. 하위영역별로 선정된 문항을 보면, 친구들이 아동을 좋아하는지, 잘 도와주는지, 따돌리는지, 아동의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지 등에 관한 아동의 지각을 평가하는 친구지지 8문항, 가족이 아동을 잘 이해해주는지, 관심이 많은지,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해주는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지지 8문항, 교사가 아동의 요청을 들어주고, 인정해 주며 친밀감 등의 내용으로 교사지지 8문항,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와 친밀한지,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에 대한 9문항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와 같이 5점 척도로 나누었고, 최저 33점부터 165점까지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9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내적 신뢰도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사회적 지지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수	신뢰도
친구지지	1, (2), 3, 4, 5, 6, 7, 8	8	.921
가족지지	(9), 10, 11, 12, 13, 14, 15, 16	8	.928
교사지지	17, 18, (19), (20), 21, 22, 23, 24	8	.880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	25, 26, 27, 28, 29, 30, 31, 32, 33	9	.967
사회적지지(전체)		33	.949

* ()는 역 채점 문항 표시임

2) 역량지각 척도

청소년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Harter(1985)가 제작한 “아동용 자기지각 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SPPC)”을 번안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3~6학년 아동들을 위해 수정·보완한 최명구와 김경자(1995)의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척도(이하 역량지각 척도라 명명함)’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들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자기보고 형식의 검사도구로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들의 역량지각을 6가지 하위 영역별로 구분하여 총 33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가끔 그렇다(3점)’, ‘자주 그렇다(4점)’, ‘매우 자주 그렇다(5점)’와 같이 5점 척도로 나누었고, 최저 33점부터 165점까지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역량을 아동이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기 역량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5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내적 신뢰도는 <표 III-3>와 같다.

<표 III-3> 역량지각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수	신뢰도
학문적 역량	1, 7, 12, 17, 23, (28)	6	.737
사회적 역량	2, 8, 13, 18, 29	5	.645
운동적 역량	3, 14, 19, 24, 30	5	.705
신체적 역량	4, 9, 15, 20, (25), 31	6	.730
행동적 역량	5, 10, 21, (26), 32	5	.636
전반적 역량	6, 11, 16, (22), 27, 33	6	.726
역량지각(전체)		33	.905

* ()는 역 채점 문항 표시임

3) 심리적 안녕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기형(2006)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김기형의 척도는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한국심리학회지, 2001)가 번안한 것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지배력, 삶의 목표, 개인적 성장의 여섯 요인이 총 2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어느 정도 그렇다(4)’, ‘매우 많이 그렇다(5)’와 같이 5점 척도로 나누었고, 최저 29점부터 145점까지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2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내적 신뢰도는 다음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수	신뢰도
자아수용	2, 6, 12, 16, 24, 26	6	.789
긍정적 대인관계	(3), (7), (13), (29)	4	.754
자율성	4, 10, 19	3	.641
환경지배력	9, 17, 20, 27	4	.717
삶의 목표	(5), (8), (11), (15), 18, 22	6	.707
개인적 성장	(1), (14), 21, (23), (25), (28)	6	.661
심리적 안녕감(전체)		29	.902

* ()는 역 채점 문항 표시임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 충실하게 응답한 자료 275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SPSS 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과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 각 항목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년, 가족유형,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 검정, 일원변량분석(ANOVA)를 사용하였다.

넷째,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저소득가정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년, 가족유형,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검증

저소득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학년, 가족유형,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성별의 경우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학년 및 가족유형,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와 같다.

<표 IV-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변인	구분	사회적 지지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	전체
		$\bar{X}(s)$	$\bar{X}(s)$	$\bar{X}(s)$	$\bar{X}(s)$	$\bar{X}(s)$
성별	남(n=104)	3.70(.81)	4.06(.87)	3.65(.87)	3.63(.94)	3.76(.69)
	여(n=171)	3.73(.80)	3.99(.93)	3.75(.78)	3.90(.90)	3.84(.63)
	t	-.251	.603	-.709	-2.310*	-.962
학년	4학년(n=107)	3.71(.87)	4.28(.77)	3.90(.77)	3.94(.91)	3.96(.61)
	5학년(n=72)	3.58(.83)	3.94(.92)	3.63(.77)	3.75(.87)	3.73(.67)
	6학년(n=96)	3.83(.70)	3.78(.98)	3.51(.85)	3.68(.95)	3.70(.68)
	F	2.090	8.521***	6.342**	2.147	4.749**
가족 유형	양부모(n=141)	3.76(.84)	4.11(.91)	3.65(.83)	3.78(.95)	3.82(.66)
	모자(n=55)	3.60(.75)	4.02(.85)	3.63(.80)	3.82(.79)	3.77(.63)
	부자(n=39)	3.68(.89)	3.85(.86)	3.80(.79)	3.80(.87)	3.78(.66)
	조손(n=40)	3.78(.66)	3.88(1.01)	3.85(.81)	3.82(1.06)	3.83(.71)
	F	.643	1.189	.982	.032	.129

	1년미만(n=61)	3.60(.80)	3.90(.89)	3.62(.80)	3.68(.90)	3.70(.70)
지역 아동 센터	1년이상~ 2년미만(n=58)	3.70(.82)	4.13(.90)	3.77(.84)	3.61(.99)	3.80(.70)
	2년이상~ 3년미만(n=46)	3.71(.96)	4.08(.87)	3.80(.79)	4.02(.80)	3.91(.65)
이용 기간	3년이상~ 4년미만(n=44)	3.66(.83)	3.83(1.02)	3.58(.84)	3.70(1.02)	3.70(.67)
	4년이상(n=66)	3.89(.64)	4.11(.86)	3.71(.82)	3.97(.85)	3.92(.56)
	F	1.190	1.160	.665	2.213	1.528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전체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인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t = -2.310$, $p < .05$) 항목에서 여아($\bar{X} = 3.90$)가 남아($\bar{X} = 3.63$)보다 더 높게 지각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하여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여아가 남아에 비하여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한 이소영(2009), 박유미(2010) 연구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 = 4.749$, $p < .01$)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족지지 항목에서 4학년($\bar{X} = 4.28$), 5학년($\bar{X} = 3.94$), 6학년($\bar{X} = 3.78$)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 = 8.521$, $p < .001$)를 보였고, 교사지지 항목에서 4학년($\bar{X} = 3.90$), 5학년($\bar{X} = 3.63$), 6학년($\bar{X} = 3.5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 = 6.342$, $p < .01$)를 보였다. 이는 저학년일수록 가족지지와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학년이 낮을수록 가족지지와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는 학년별로 차이가 없다는 이경림(2007)의 연구와 상통한다.

가족유형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기간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가족유형은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박유미(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량지각의 차이 검증

저소득가정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학년, 가족유형,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에 따른 아동의 역량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의 경우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학년 및 가족유형,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량지각의 차이

변인	구분	역량지각						
		학문적 역량	사회적 역량	운동적 역량	신체적 역량	행동적 역량	진반적 역량	전체
		$\bar{X}(s)$	$\bar{X}(s)$	$\bar{X}(s)$	$\bar{X}(s)$	$\bar{X}(s)$	$\bar{X}(s)$	$\bar{X}(s)$
성별	남(n=104)	3.31(.76)	3.45(.67)	3.53(.77)	3.42(.72)	3.06(.68)	3.63(.70)	3.40(.54)
	여(n=171)	3.09(.70)	3.29(.76)	3.33(.72)	3.07(.80)	3.04(.66)	3.37(.70)	3.20(.55)
	t	2.520*	1.733	2.127*	3.646***	.207	3.097**	2.995**
학년	4학년(n=107)	3.28(.73)	3.37(.79)	3.37(.71)	3.27(.80)	3.12(.70)	3.55(.71)	3.33(.59)
	5학년(n=72)	3.16(.71)	3.30(.71)	3.45(.74)	3.25(.69)	2.99(.71)	3.48(.64)	3.27(.50)
	6학년(n=96)	3.06(.73)	3.37(.69)	3.42(.78)	3.08(.85)	3.01(.62)	3.37(.75)	3.22(.55)
	F	2.270	.236	.265	1.688	.996	1.829	1.133
가족 유형	양부모(n=141)	3.27(.67)	3.43(.71)	3.48(.69)	3.24(.79)	3.11(.69)	3.52(.73)	3.34(.55)
	모자(n=55)	3.11(.80)	3.13(.74)	3.31(.79)	3.22(.78)	2.96(.67)	3.42(.71)	3.20(.58)
	부자(n=39)	2.99(.81)	3.30(.86)	3.26(.75)	3.18(.83)	3.02(.72)	3.34(.74)	3.18(.63)
	조손(n=40)	3.07(.73)	3.39(.61)	3.46(.81)	3.04(.76)	2.98(.50)	3.46(.59)	3.24(.44)
	F	2.126	2.389	1.358	.680	.866	.786	1.499
지역 아동 센터 이용 기간	1년미만(n=61)	3.23(.75)	3.34(.82)	3.36(.68)	3.27(.76)	3.01(.66)	3.53(.66)	3.29(.56)
	1년이상~ 2년미만(n=58)	3.26(.78)	3.36(.68)	3.48(.76)	3.28(.83)	3.24(.67)	3.55(.77)	3.37(.57)
	2년이상~ 3년미만(n=46)	3.09(.58)	3.34(.74)	3.36(.71)	2.99(.74)	2.97(.78)	3.36(.72)	3.18(.54)
	3년이상~ 4년미만(n=44)	3.06(.76)	3.17(.77)	3.35(.70)	3.18(.76)	2.94(.61)	3.33(.70)	3.18(.50)
	4년이상(n=66)	3.17(.74)	3.48(.65)	3.46(.82)	3.23(.84)	3.03(.61)	3.51(.70)	3.31(.57)
	F	.702	1.144	.414	1.077	1.806	1.079	1.150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역량지각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t=2.995, p<.01$)를 보였다. 역량지각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역량($t=3.646, p<.001$), 전반적 역량($t=3.097, p<.01$), 학문적 역량($t=2.520, p<.05$), 운동적 역량($t=2.127, p<.05$)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지각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적 역량과 행동적 역량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외모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학교생활이나 학업수행 능력 및 운동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성별에 따라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역량지각을 보여준 이경림(2007), 조양래(2009)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아동의 학년과 가족유형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에 따른 아동의 역량지각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검증

저소득가정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학년, 가족유형,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성별의 경우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학년 및 가족유형,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3>와 같다.

<표 IV-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변인	구분	심리적 안녕감						
		자아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지배력	삶의 목표	개인적 성장	전체
		$\bar{X}(s)$	$\bar{X}(s)$	$\bar{X}(s)$	$\bar{X}(s)$	$\bar{X}(s)$	$\bar{X}(s)$	$\bar{X}(s)$
성별	남(n=104)	3.51(.77)	3.61(.81)	3.25(.78)	3.35(.71)	3.45(.70)	3.36(.66)	3.43(.52)
	여(n=171)	3.30(.70)	3.44(.89)	3.17(.73)	3.25(.72)	3.40(.65)	3.32(.65)	3.32(.55)
	<i>t</i>	2.321*	1.604	.917	1.099	.547	.460	1.587
학년	4학년(n=107)	3.48(.72)	3.44(.94)	3.23(.81)	3.38(.78)	3.47(.74)	3.36(.66)	3.41(.57)
	5학년(n=72)	3.30(.75)	3.51(.79)	3.16(.77)	3.21(.71)	3.40(.61)	3.39(.55)	3.34(.49)
	6학년(n=96)	3.33(.75)	3.57(.84)	3.19(.68)	3.24(.64)	3.38(.64)	3.27(.71)	3.34(.56)
	F	1.598	.607	.182	1.601	.468	.814	.535
가족 유형	양부모(n=141)	3.40(.76)	3.59(.86)	3.26(.76)	3.34(.72)	3.48(.71)	3.38(.63)	3.42(.54)
	모자(n=55)	3.35(.62)	3.27(.86)	3.18(.63)	3.26(.63)	3.30(.61)	3.32(.67)	3.29(.51)
	부자(n=39)	3.30(.83)	3.38(.84)	3.10(.85)	3.12(.92)	3.34(.71)	3.19(.64)	3.25(.63)
	조손(n=40)	3.45(.71)	3.63(.87)	3.10(.76)	3.28(.58)	3.44(.53)	3.35(.70)	3.39(.51)
	F	.348	2.426	.824	1.051	1.171	.907	1.380
지역 아동 센터 이용 기간	1년미만(n=61)	3.33(.74)	3.43(.81)	3.17(.71)	3.27(.74)	3.34(.66)	3.22(.55)	3.30(.54)
	1년이상~ 2년미만(n=58)	3.45(.77)	3.66(.90)	3.13(.90)	3.44(.66)	3.57(.69)	3.41(.76)	3.46(.61)
	2년이상~ 3년미만(n=46)	3.39(.79)	3.42(.89)	3.30(.80)	3.29(.86)	3.37(.73)	3.26(.66)	3.34(.54)
	3년이상~ 4년미만(n=44)	3.20(.70)	3.42(.93)	3.00(.62)	3.07(.59)	3.36(.60)	3.32(.58)	3.25(.46)
	4년이상(n=66)	3.49(.67)	3.55(.83)	3.37(.66)	3.31(.68)	3.43(.66)	3.44(.67)	3.44(.53)
F	1.202	.820	2.301	1.646	1.100	1.193	1.503	

* $p < .05$

아동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 전체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인 자아수용($t=2.321$, $p < .05$) 항목에서는 남아($\bar{X}=3.51$)가 여아($\bar{X}=3.30$)보다 더 높게 지각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며,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동의 학년과 가족유형,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 분석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4>과 같다.

<표 IV-4>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 역량지각,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분석 (n=275)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사 지지	지역아 동센터 복지사 지지	사회적 지지 (전체)	학문적 역량	사회적 역량	운동적 역량	신체적 역량	행동적 역량	전반적 역량	역량 지각 (전체)	자아 수용	긍정적 대인 관계	자율성	환경 지배력	삶의 목표	개인적 성장	심리적 안녕감 (전체)
친구 지지	1																		
가족 지지	.386**	1																	
교사 지지	.363**	.489**	1																
지역아 동센터 복지사 지지	.377**	.463**	.528**	1															
사회적 지지 (전체)	.679**	.772**	.773**	.807**	1														
학문적 역량	.467**	.341**	.341**	.236**	.445**	1													
사회적 역량	.631**	.309**	.331**	.220**	.474**	.543**	1												
운동적 역량	.428**	.236**	.297**	.209**	.375**	.448**	.462**	1											
신체적 역량	.362**	.313**	.256**	.220**	.373**	.510**	.447**	.349**	1										
행동적 역량	.378**	.351**	.285**	.232**	.404**	.497**	.392**	.344**	.485**	1									
전반적 역량	.467**	.482**	.437**	.331**	.557**	.575**	.509**	.443**	.734**	.588**	1								
역량 지각 (전체)	.602**	.450**	.432**	.322**	.582**	.800**	.733**	.666**	.788**	.706**	.843**	1							
자아 수용	.521**	.490**	.447**	.415**	.611**	.521**	.483**	.424**	.516**	.416**	.620**	.662**	1						
긍정적 대인 관계	.483**	.242**	.298**	.114	.357**	.479**	.598**	.426**	.354**	.362**	.476**	.588**	.323**	1					
자율성	.414**	.277**	.303**	.344**	.438**	.394**	.396**	.383**	.321**	.303**	.376**	.481**	.675**	.189**	1				
환경 지배력	.564**	.439**	.376**	.390**	.576**	.593**	.523**	.513**	.487**	.540**	.621**	.720**	.726**	.397**	.615**	1			
삶의 목표	.314**	.313**	.351**	.266**	.405**	.483**	.333**	.377**	.423**	.444**	.494**	.558**	.445**	.464**	.275**	.521**	1		
개인적 성장	.306**	.279**	.327**	.256**	.380**	.517**	.365**	.399**	.490**	.412**	.528**	.595**	.401**	.576**	.298**	.441**	.684**	1	
심리적 안녕감 (전체)	.570**	.459**	.473**	.393**	.615**	.667**	.594**	.555**	.587**	.553**	.702**	.805**	.793**	.671**	.630**	.801**	.784**	.784**	1

** $p < .01$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 역량지각,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 전체점수와 역량지각 전체점수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582,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4).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친구 지지($r=.602, p<.01$), 가족지지($r=.450, p<.01$), 교사지지($r=.432, p<.01$),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r=.322, p<.01$) 순으로 역량지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과 역량지각 하위요인 간에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역량지각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역량지각이 높다는 조양래(2010), 김현옥(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r=.615,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친구지지($r=.570, p<.01$), 교사지지($r=.473, p<.01$), 가족지지($r=.459, p<.01$),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r=.393, p<.01$) 순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과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의 상관분석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와 긍정적 대인관계와의 관련성을 제외하고 하위 요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 때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노혜숙(2008), 채수옥(2010)의 연구와 일치하며,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문수정(2004)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고, 심리적 안녕감과도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김현옥(2010)의 연구와 일치하며,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는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을 누리고,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된다는 Cohen과 Wills(1985)의 연구와 저소득가정 아동이 외부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이 용철(2009)의 연구와도 상통한다.

역량지각 전체점수와 심리적 안녕감 전체점수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805,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지각의 하위요인 중 전반적 역량($r=.702, p<.01$), 학문적 역량($r=.667, p<.01$), 사회적 역량($r=.594, p<.01$), 신체적 역량($r=.587, p<.01$), 운동적 역량($r=.555, p<.01$), 행동적 역량($r=.553, p<.01$) 순으로 심리적 안녕감 전체점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지각

하위요인과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간에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역량지각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역량지각이 높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Diener(1995)의 연구와 일치하며, 자기역량지각을 높게 지각한 아동이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김현옥(2010), 홍성원(2012)의 연구와 일치한다.

3.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n=275)

심리적 안녕감	투입변인	<i>b</i>	β	<i>t</i>	R^2	F
자아수용	전반적 역량	.221	.213	2.804**	.527	29.382***
	친구지지	.133	.146	2.459*		
	가족지지	.116	.143	2.647**		
	학문적 역량	.123	.122	2.100*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	.089	.111	2.092*		
긍정적 대인관계	사회적 역량	.405	.343	5.201***	.444	21.042***
	전반적 역량	.236	.193	2.344*		
	친구지지	.140	.130	2.026*		
자율성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	-.135	-.144	-2.496*	.293	10.957***
	운동적 역량	.153	.188	2.898**		
		.159	.157	2.518*		

환경 지배력	학문적 역량	.188	.191	3.507**	.582	36.803***
	전반적 역량	.189	.188	2.625**		
	친구지지	.151	.170	3.058**		
	운동적 역량	.162	.168	3.508**		
	행동적 역량	.164	.153	2.999**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	.099	.128	2.568*		
삶의 목표	학문적 역량	.196	.213	3.135**	.352	14.352***
	행동적 역량	.161	.160	2.516*		
	운동적 역량	.114	.126	2.108*		
개인적 성장	학문적 역량	.221	.248	3.745***	.387	16.667***
	신체적 역량	.144	.175	2.390*		
	운동적 역량	.122	.138	2.376*		
심리적 안녕감 (전체)	학문적 역량	.0169	.227	4.825***	.689	58.593***
	전반적 역량	.156	.204	3.300**		
	운동적 역량	.121	.165	3.992***		
	사회적 역량	.073	.099	2.001*		
	행동적 역량	.072	.089	2.017*		

* $p < .05$, ** $p < .01$, *** $p < .001$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자아수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전반적 역량($\beta = .213$, $p < .01$), 친구지지($\beta = .146$, $p < .05$), 가족지지($\beta = .143$, $p < .01$), 학문적 역량($\beta = .122$, $p < .05$),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beta = .111$, $p < .05$)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 52.7%($p < .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자기를 인간으로 좋아하는 것이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 가장 영향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중 친구지지와 가족지지,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며, 학업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을 잘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대인관계를 설

명하는 데는 사회적 역량($\beta=.343, p<.001$), 전반적 역량($\beta=.193, p<.05$), 친구지지($\beta=.130, p<.05$),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beta=-.144, p<.05$)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였고, 총 44.4%($p<.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사회적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일때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중 친구지지와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가 긍정적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자율성을 설명하는 데는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beta=.188, p<.01$), 운동적 역량($\beta=.157, p<.05$)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였고, 총 29.3%($p<.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자신의 운동능력을 높게 평가할 때 자기 결정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환경지배력을 설명하는데 학문적 역량($\beta=.191, p<.01$), 전반적 역량($\beta=.188, p<.01$), 친구지지($\beta=.170, p<.01$), 운동적 역량($\beta=.168, p<.01$), 행동적 역량($\beta=.153, p<.01$),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beta=.128, p<.05$)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였고, 총 58.2%($p<.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학업능력이 환경지배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신의 행동방식에 만족하는 아동일수록 주위에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알며 개인적 필요나 가치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삶의 목표를 설명하는 데는 학문적 역량($\beta=.213, p<.01$), 행동적 역량($\beta=.160, p<.05$), 운동적 역량($\beta=.126, p<.05$)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였고, 총 35.2%($p<.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학업능력과 운동능력이 높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행동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아동일수록 삶의 목표를 정하고 의도적으로 삶의 영위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개인적 성장을 설명하는 데는 학문적 역량($\beta=.248, p<.001$), 신체적 역량($\beta=.175, p<.05$), 운동적 역량($\beta=.138, p<.05$)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였고, 38.7%($p<.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학업능력과 운동능력이 높고 자신의 외모에 만족감이 높을수록 잠재력을 개

발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심리적 안녕감 전체를 설명하는데, 학문적 역량($\beta=.227, p<.001$), 전반적 역량($\beta=.204, p<.01$), 운동적 역량($\beta=.165, p<.001$), 사회적 역량($\beta=.099, p<.05$), 행동적 역량($\beta=.089, p<.05$)순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68.9%($p<.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심리적 안녕감 전체점수를 예측하는데 역량지각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을 설정하고, 저소득가정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 역량지각, 심리적 안녕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 및 각 요인의 상관관계와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제주시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년, 가족유형,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여아가 남아에 비해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중 지역아동센터 복지사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역량지각 하위요인 중 학문적 역량, 운동적 역량, 신체적 역량, 전반적 역량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은 자아수용에 대하여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학년, 가족유형,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저학년일수록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중 가족과 교사에 대한 지지를 높게 지각하였으나 가족유형과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은 모두 정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역량지각 전체점수는 사회적 지지 하

위요인 중 친구, 가족, 교사,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의 지지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심리적 안녕감 전체점수는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중 친구, 교사, 가족,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의 지지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심리적 안녕감 전체점수와 역량지각 하위요인 간에는 전반적 역량, 학문적 역량, 사회적 역량, 신체적 역량, 운동적 역량, 행동적 역량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사회적 지지, 역량지각,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대인관계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중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는 의외로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자아수용에 대한 설명력은 전반적 역량, 친구지지, 가족지지, 학문적 역량,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 순이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사회적 역량, 전반적 역량, 친구지지,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 순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자율성에 대한 설명력은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 운동적 역량 순이었으며,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환경지배력에 대한 설명력은 학문적 역량, 전반적 역량, 친구지지, 운동적 역량, 행동적 역량,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 순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삶의 목표에 대한 설명력은 학문적 역량, 행동적 역량, 운동적 역량 순이었으며,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개인적 성장을 설명하는 데는 학문적 역량, 신체적 역량, 운동적 역량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녕감 전체점수에 대한 설명력은 학문적 역량, 전반적 역량, 운동적 역량, 사회적 역량, 행동적 역량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주시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및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의 영향력을 밝혀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시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가정 아동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서 연구 대상의 범위와 표집 지역을 확대하여 본 연구에서 다뤄진 요인들 간의 상관 및 영향력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검증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가정 아동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방과 후 보호 아동과 비보호 아동 간의 사회적 지지, 역량지각,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차이를 밝히지 못한 점도 연구의 제한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저소득가정 아동 중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 후 보호를 받는 아동과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따른 차이를 후속 연구를 통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으로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지지를 설정하여 조사하였으나 변수들간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이용만족도와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와의 관계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 관한 후속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역량지각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는데,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다양한 요인들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저소득가정 아동 자신이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역량지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겠다.

여섯째, 주변의 사회적 지지 요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지체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적 지지와 연계하여 아동의 역량지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저소득가정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가족, 교사, 친

구, 지역아동센터 복지사 등의 이해와 격려, 지지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자녀양육 방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부모교육, 또래관계 개선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가 아니라 아동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교사로서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며,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환경 개선과 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정갑(2001). 경남지역 초등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위상변화에 대한 지각.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김관희, 이경희(1997).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2), 145-165.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명소, 임지영(2003).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83-97.
- 김수진(2008).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김영아(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와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7(2), 203-212.
- 김은경(200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아개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중남(2004). 인문계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김현옥(2010).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이 역량지각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 노혜숙(2008). 고등학생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문수정(2004).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민자용(2009). 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 박유미(2010). 저소득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배영옥(2010).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 백정재 이재연(1997).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행동. *생활연구소*, 12(1), 71-93.
- 설기문(2001).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학지사.
- 신기철, 신용철(1975). *새우리말 큰 사전*. 서울:삼성출판사.
- 양병한(2003). 초등 교사들의 심리적 안녕감. *교육학연구*, 41(4), 285-309.
- 오가혜(2001). 수줍음과 우울에 대한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오승환(2000). 저소득 결손가정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오지윤(1999).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들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옥선화, 성미애, 허정원(2001). 경제위기 이후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조사. *대한 가정학회지*, 39(2), 1-13.
- 유안진,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윤미경(1998).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경림(2006). 빈곤가족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역량에 미치는 영향: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가족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 이상희(2007). 지역아동센터 경험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이소영(2009).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서울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이용철(2009). **희망, 공감,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이유리(2009).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부모화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이유선(1996). **사회적 지지와 자기지각이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 시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주은(1995). **우울과 자기지향이 자기지각, 사회적 지지 및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혜경(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지지 및 임파워먼트와 심리사회적 적응**.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장인희(2004).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행동과 역량지각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정영심(2000). **자기지각 및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정성인(1998).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승민(2005).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개념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조양래(2009). **빈곤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역량에 미치는 영향: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주경희(2010).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및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채수옥(2010). **초등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추이현(2002).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중학생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최명구, 김경자(1995). **아동의 자기 역량과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13, 127-156.
- 최은주(2001).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계 연구**.

-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하유진(2006). **자아존중감 및 내외 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20, 30대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한중혜(1995). 사회적관계망과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29-141.
- 한중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 존중감**. 박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 홍복희(2001).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지역별 서울시, 신도시, 군 지역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홍성원(2012).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수용적 의사소통이 자기역량지각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보건복지부(2012).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hen S.,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Diener M., Diener C.(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851.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Ryan R. M., Deci E. L.(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Keyes C. L.(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chaefer C., Coyne J. C., Lazarus R. S.(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381-406.
- Springer K. W., Hauser R. M.(2006). An assessment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Ryff's Scale of Psychological Well-being:Method, mode, and measurement effects. *Social Science Research*, 35, 1080-1102.
- Thoits P. A.(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16-423.
- White R. W.(1959). Motivation reconsidered: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333.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http://www.icareinfo.info/>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http://www.kaccc.org/>

<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Lee, So Hee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yo Sh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elf-perceived compet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to elevate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75 children who were in 4th, 5th and 6th grade in the elementary school and attending 22 community child centers in Jeju. The scale of social support, the scale of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the scale of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used as the instrum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s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re are differences to social support,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gender, grade, family type and period of

community child care center attended as their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Girls were more strongly aware of the support of community child care center workers than boys. Boys were more strongly aware of scholastic competence, athletic competence, physical competence, self-worth competence of self-perceived competence than girls. In difference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gender, boys were more strongly aware of self-acceptance than girls. It shows that lower grades students were more strongly aware of supports of families and teachers as sub factors of social support than older students. However it shows no difference in family type and the period of community child care center attended.

Second, in analysis of correlation among social support,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 total of social support,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m. It show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friend, family, teacher and community child care center workers in order) and the total of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it shows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friend, teacher, family and community child care center workers in order) and the total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It shows positive correlations among each sub factor of social support,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except the relation of community child care center worker support and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t shows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perceived competence (self-worth competence, scholastic competence, social competence, physical competence, athletic competence, behavioral competence in order) and the total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according to multi-regression analysis of social support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in low income

family, self-acceptance as a sub factor of psychological well-being was affected by self-worth competence, support of friend, support of family, scholastic competence and support of community child care center worker in order. The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a sub factor of psychological well-being was affected by social competence, self-worth competence, support of friend, support of community child care center worker in order. It indicated that support of community child care center worker has strongest, athletic competence has secondly strong effect on autonomy as a sub factor of psychological well-being. Environmental mastery as a sub factor of psychological well-being was affected by scholastic competence, self-worth competence, behavioral competence, support of community child care center worker in order. Purpose in life as a sub factor of psychological well-being was affected by scholastic competence, physical competence, athletic competence in order. Personal growth of psychological well-being was affected by scholastic competence, behavioral competence, athletic competence in order. Finally, it showed that self-perceived competence affecte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than the social support.

부 록

<부 록 1> 설문지

<부 록 2> 사회적 지지 척도

<부 록 3> 역량지각 척도

<부 록 4> 심리적 안녕감 척도

설 문 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평소에 여러분 자신과 가족, 친구, 학교선생님,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에 대한 평소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정답이 없으며, 개인마다 답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학교 성적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 연구자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으므로 비밀이 지켜집니다. 각 질문에 대해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에 생각하고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의껏 작성하신 응답은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대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응답요령

- ① 각 문항별로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 ②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문항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해 주세요. 한 문항이라도 빠지게 되면 설문지 전체를 쓸 수 없게 됩니다.
- ③ 각 문항마다 주어진 번호 중 한 곳에만 ○표시를 하세요.
- ④ 의문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 선생님께 질문해 주세요.

2011년 12월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

이 소 회

<부록 2> 사회적 지지 척도

여러분이 평소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주변 사람들한테서 받고 있다고 느끼는 도움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1	2	3	4	5
2	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1	2	3	4	5
3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1	2	3	4	5
4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나를 위로 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 같다.	1	2	3	4	5
5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다.	1	2	3	4	5
6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7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1	2	3	4	5
8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1	2	3	4	5
9	우리 가족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10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1	2	3	4	5
11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1	2	3	4	5
12	우리 가족은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1	2	3	4	5
13	내가 힘들어 할 때 우리 가족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1	2	3	4	5
14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 주는 것 같다.	1	2	3	4	5
15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1	2	3	4	5
16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나는 우리 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1	2	3	4	5
18	우리 학교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1	2	3	4	5
19	나는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1	2	3	4	5
20	우리 학교선생님은 내 기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1	2	3	4	5
21	우리 학교선생님은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1	2	3	4	5
22	우리 학교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1	2	3	4	5
23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나를 걱정해 주시는 것 같다.	1	2	3	4	5
24	우리 학교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	1	2	3	4	5
25	공부방(지역아동센터)선생님은 나를 사랑해주고 보살펴 준다.	1	2	3	4	5
26	공부방(지역아동센터)선생님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1	2	3	4	5
27	공부방(지역아동센터)선생님은 언제나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들어준다.	1	2	3	4	5
28	공부방(지역아동센터)선생님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1	2	3	4	5
29	공부방(지역아동센터)선생님은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내 마음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30	공부방(지역아동센터)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주는 편이다.	1	2	3	4	5
31	공부방(지역아동센터)선생님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신다.	1	2	3	4	5
32	공부방(지역아동센터)선생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1	2	3	4	5
33	공부방(지역아동센터)선생님은 자신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없는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를 도와준다.	1	2	3	4	5

♣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장의 질문에도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록 3> 역량지각 척도

다음 문항은 평소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상태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학교공부를 잘 한다.	1	2	3	4	5
2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다. (친구를 잘 사귄다)	1	2	3	4	5
3	운동을 잘 한다. (어느 운동이든지 잘 한다.)	1	2	3	4	5
4	외모(겉모습)에 만족한다	1	2	3	4	5
5	나의 행동에 대해 항상 만족한다.	1	2	3	4	5
6	항상 행복하고 자기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7	친구들만큼 똑똑하다.	1	2	3	4	5
8	친구가 많다.	1	2	3	4	5
9	키와 몸무게가 알맞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한다.	1	2	3	4	5
11	나의 생활방식에 만족한다.	1	2	3	4	5
12	학교 숙제를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	1	2	3	4	5
13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친구가 많다)	1	2	3	4	5
14	그 전에 해 본적이 없는 새로운 운동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15	현재 그대로의 실체를 좋아한다.	1	2	3	4	5
16	한 인간으로서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17	배운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다.	1	2	3	4	5
18	항상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한다.	1	2	3	4	5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9	다른 아이들처럼 운동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20	현재의 나의 얼굴을 좋아한다.	1	2	3	4	5
21	야단맞을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	1	2	3	4	5
22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1	2	3	4	5
23	학교 생활을 착실히 잘 한다.	1	2	3	4	5
24	게임이나 운동경기를 할 때 보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25	얼굴과 머리카락이 현재와 달랐으면 한다.	1	2	3	4	5
26	해서는 안되는 일을 알면서도 한다.	1	2	3	4	5
27	현재의 나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28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29	친구들간에 인기가 있다.	1	2	3	4	5
30	새로운 게임도 금방 잘 한다.	1	2	3	4	5
31	나 자신은 잘 생겼다.	1	2	3	4	5
32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아서 행동한다.	1	2	3	4	5
33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일을 한다.)	1	2	3	4	5

♣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장의 질문에도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록 4> 심리적 안녕감 척도

다음 문항은 여러분이 평소에 심리적인 행복에 대해 느끼고 있는 점들에 관한 것입니다.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상태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현재 나의 생활영역을 넓힐 생각이 없다.	1	2	3	4	5
2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에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1	2	3	4	5
3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1	2	3	4	5
4	많은 사람들과 의견이 달라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한다.	1	2	3	4	5
5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6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1	2	3	4	5
7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1	2	3	4	5
8	과거에는 나 자신이 혼자 목표를 세우곤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시간낭비였던 것 같다.	1	2	3	4	5
9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	1	2	3	4	5
10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11	가끔 매일 하는 일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12	나는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1	2	3	4	5
13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은 많지 않다.	1	2	3	4	5
14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나 자신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1	2	3	4	5
15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16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일이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일반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다.	1	2	3	4	5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8	나는 미래의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19	내 의견이 비록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나는 내 의견이 옳다고 확신한다.	1	2	3	4	5
20	나는 시간 활용을 잘해서 해야 할 일을 제 시간에 맞게 처리해 나갈 수 있다.	1	2	3	4	5
21	그 동안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2	내가 세운 계획은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3	지금의 생활방식을 바꾸어야 할 새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1	2	3	4	5
24	과거를 돌이켜보면 좋았던 때도 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	1	2	3	4	5
25	내 인생을 크게 개선하거나 바꾸겠다는 생각은 이미 버렸다.	1	2	3	4	5
26	나 자신을 친구나 친척들과 비교할 때면 나 자신에 대해 흐뭇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27	나의 생활방식을 내 맘에 들도록 만들어 올 수 있었다.	1	2	3	4	5
28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뒤늦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9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1	2	3	4	5

♣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감사의 글

논문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길다면 긴 2년 반 동안 학업을 지속하고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열정과 헌신을 다해 한결같은 지지와 격려로 부족한 제자를 위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해주시고 마지막까지 한 문장 한 문장 다듬어주신 김효심 지도교수님, 세심하게 교욱 필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따뜻한 가르침으로 지도해주신 김양순 교수님, 송재홍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의 주제 선정에 도움을 주시고 믿고 지켜봐 주신 김경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 빈자리를 대신해주신 시어머니와 시아버님,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집안일을 도맡아 해 준 남편, 직장과 학업으로 늘 바쁜 엄마라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했지만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준 우리 딸 지안, 유안이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용기와 끈기로 대학원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로 지켜봐 주신 친정 가족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논문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해 준 제주시 지역아동센터 교사 및 학생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힘든 시간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준 심리치료학과 2기 동기들과 선배들,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다시는 되돌아 갈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가슴 속에 오래오래 간직하고 그 동안의 고마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꾸준히 노력하여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이 곁에 있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2012년 8월 이 소 희